

예 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8. 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16
V. 종합의견	18

I. 일반개황

면적	528천 km ²	G D P	256.7억 달러 (2017년)
인구	29.98백만 명 (2017년)	1 인 당 GDP	856달러 (2017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Yemeni Riyal (YR)
대외정책	친아랍, 친서방	환율(달러당)	214.89 (2017년 평균)

- 예멘은 한반도의 2.4배 면적의 국토에 2,998만 명(2017년 추정) 규모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라비아 반도 서남단의 홍해 입구에 위치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오만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원유 매장량의 점진적 고갈로 인해 1인당 GDP가 856달러(2017년 기준)에 불과한 중동 지역 최빈국으로, 경제의 대부분을 석유 수출과 농업에 의존하고 있음.
- 1990년에 이슬람 국가인 북예멘과 사회주의 국가인 남예멘이 통일된 이후 북예멘 출신의 살레(Saleh) 대통령이 장기집권했으나, 2011년 2월 민주화 시위 발발로 2012년 2월 정권이 교체되고 前부통령 하디(Hadi)가 과도 정부의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음.
- 과도정부 수립 후에도 정국 혼란이 계속된 끝에 2015년 제2차 내전이 발발,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니파 국가의 후원을 받는 정부군과 이란의 후원을 받는 시아파 후티(Houthi) 반군 간의 전투 및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아랍 연합군의 공격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등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 아울러 남부 지역의 분리주의 세력이 남예멘의 재분리 독립을 요구하며 정부군을 공격하고,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AQAP)와 이슬람국가(IS) 등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들이 무정부 상태의 지역에서 활거하는 등 상황이 악화 일로를 치닫고 있음.

II. 경제동향¹⁾

1. 국내경제

□ 내전 지속에 따른 경제 마비로 2014~17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 추정

- 예멘 경제는 ‘아랍의 봄’ 사태에 따른 반정부 시위 발발로 인해 2011년 -12.7%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후 기저효과에 따라 2012~13년 플러스 성장을 회복하였으나, 이후 원유생산량의 지속적 감소*에 더하여 2015년 정부군과 후티(Houthi) 반군 간의 제2차 내전 발발 및 악화로 인해 2014~17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 일일 원유생산량(천 배럴)²⁾: 193('13) → 147('14) → 44('15) → 16('16)

- 2015년 경제성장률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아랍 동맹군의 후티 반군 공습에 따른 내전 격화 및 인프라 파괴, 원유생산 중단으로 인해 -28.1%로 급락하였음.
- 2016년과 2017년에도 내전의 장기화 및 사태 악화에 따른 인프라 파괴, 연료·전력 부족으로 국가경제가 사실상 마비되어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 정부군-반군 간의 내전 지속 및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AQAP), 이슬람국가(IS) 등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의 테러에 의한 원유 생산 시설과 송유관 파괴 등으로 인해 2016년 이후 예멘의 원유·천연가스 생산 및 수출은 사실상 중단된 상황임.
- IMF는 예멘 경제가 2018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부터의 원조 등으로 인해 8.5%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그러나 이는 최근 4년간의 연속 마이너스 성장의 기저효과를 반영한 결과이며, 내전 상황의 악화로 인해 실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할지의 여부는 미지수임.

1) 예멘은 이미 제2차 내전 발발(2015년) 전부터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각종 경제통계의 정확한 수치가 확보되지 않아 실질GDP, 명목GDP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는 2008년, 재정수지는 2013년까지만 실제 수치가 확보되었음. 이로 인해 IMF와 EIU도 최근 10여년 간의 예멘의 주요 경제지표를 전적으로 추정에만 의존하고 있어,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의 확보가 불가능함(실제 상황은 더욱 열악할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 British Petroleum,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7.

□ 내전 지속에 따른 세수기반 상실로 재정수지 적자 지속

- 종파·부족 간 갈등으로 분열을 거듭하는 민심의 수습, 부족한 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투자 등으로 재정지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지는 적자 기조를 지속하였음.
- 2015년 제2차 내전 발발 이후 석유수출 감소 등 세수기반이 상실되고 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됨에 따라 재정수입이 급감하면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4년 -4.1%에서 2015년 -10.6%으로 급등한 뒤 2016년 -13.5%에 달하고, 2017년에도 -9.9%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내전에 따른 생필품 등 물자 부족 현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급등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소요사태와 테러 발발로 인한 정정불안, 원유생산 감소와 보조금 삭감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2014년까지 10% 내외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음.
 - 2013년 기준 예멘 정부의 재정지출 128.7억 달러 중 연료보조금이 약 30억 달러로 23%에 이르자, 2014년 7월 재정건전화 추진의 일환으로 연료보조금을 삭감한 결과 휘발유와 디젤유의 가격이 각각 60%, 95% 상승하였음.
- 2015년에는 제2차 내전의 발발에 따른 생필품의 품귀 현상으로 생필품 가격이 급등한 결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무려 39.4%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도 내전 악화로 인한 물자 부족 심화에 따라 20.0%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e	2018 ^f
경제성장률	-0.2	-28.1	-9.8	-2.0	8.5
재정수지 / GDP	-4.1	-10.6	-13.5	-9.9	-6.6
소비자물가상승률	8.2	39.4	5.0	20.0	29.5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7)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석유산업과 농업에 편중된 취약한 경제구조

- 석유산업이 수출의 80%, 재정수입의 70% 이상(내전 이전 기준)을 차지하여 국제유가 등락 및 원유수급 변동 등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임.
 - 내전 이전부터 신규 유전 탐사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한편,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AQAP) 등 극단주의 무장조직의 테러 활동에 따른 석유 부문의 외국인투자 위축으로 원유생산량이 감소를 지속하였음.
- 농업은 GDP의 20%, 고용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영농기술 및 비료 구입여력 부족으로 생산성이 매우 낮으며, 고질적인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아울러 농산물 생산량의 대부분을 카트(qat)가 점유하여, 식량용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예멘인이 가장 즐기는 기호품인 카트는 마약성 식물로,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국제적 유통이 금지되었음. 그러나 환금성이 높아 곡물 대신 카트를 재배하는 지역이 증가하여 식량 증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카트 재배에 다량의 물이 요구됨에 따라 식수를 비롯한 각종 용수 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음.

□ 열악한 인프라 환경, 만연한 부정부패가 경제성장에 제약으로 작용

-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GCI) 2017-18 보고서에 따르면 예멘은 조사대상국 137개국 중 종합순위 137위로 최하위를 차지하는 등 도로, 철도, 전력 등 기초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중동의 최빈국임.
 - 12개 중분류 평가항목 중 10개 부문이 130위 이하로 최하위권임.
- 또한 살레 前대통령의 재임기간(1978~2012년) 동안 대통령의 친인척이 정부 요직을 독점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등 부족주의와 결합된 고질적인 부정부패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사회발전과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2015년 UN은 살레 前대통령이 석유·천연가스 계약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국민들에게 지급될 연료보조금을 착복하는 등 재임기간 동안 최대 600억 달러를 부정축재했다고 밝혔음.
-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 2016 보고서에 의하면, 예멘은 조사대상 176개국 중 170위(리비아, 수단과 공동 순위)로 시리아, 북한, 남수단, 소말리아와 함께 최하위 수준임.

나. 성장 잠재력

□ 천연가스 생산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를 기대하고 있으나 내전으로 인해 현재 개발 및 생산 중단 상태

- 2005년 승인된 Yemen LNG(YLNG) 프로젝트*에 의하여 2009년에 예멘 최초로 천연가스 생산이 개시되었음. 당시 예멘 정부는 2034년까지 25년 동안 연 620만 톤의 천연가스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음.

* 프랑스 Total(39.6%), 미국 Hunt(17.2%), 예멘 가스공사(16.7%), 예멘 사회보장연금청(5%) 외에 한국 기업도 다수 참여(한국가스공사 8.9%, 현대종합상사 3%, SK에너지 6.9%, 삼환기업 1.6%, 한국석유공사 1.1%)

- 예멘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2016년 말 0.3조 m³로,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원유를 대체할 주요 재정수입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제2차 내전의 지속으로 인해 현재 천연가스의 개발 및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

□ 지질학적 이점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 보유

- 해안 및 산악 지형의 독특한 지리적 구조로 해풍 및 계곡풍의 속도와 안정성이 높아 풍력발전에 유리함. 또한 3개 지각판의 마찰경계에 위치하고 화산 지역이 다수 분포해 있어 지열발전 잠재력도 풍부함.
- 예멘 정부는 2010년 신재생에너지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모카 풍력발전 단지 조성 프로젝트(2010년 6월), 다마르 주 지열 탐사공 개발 프로젝트(2014년 6월)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 개발에 주력하였으나, 제2차 내전 발발로 현재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임.

다. 정책성과

□ 경제다각화 추진 성과는 인프라 부족과 사회 혼란으로 미미한 수준

- 2006년부터 제3차 5개년 개발계획을 통해 천연가스, 농업, 수산업 및 관광업 발전을 추진하였으나, 천연가스 부문 외에는 교통, 전력 등 기본 인프라의 부족과 사회 혼란의 지속 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 내전 발발로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에 처해 안정적인 정책 추진 불가능

- 2015년 제2차 내전 발발로 예멘 전체가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처하면서 정부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내전 종식 및 평화 정착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3. 대외거래

□ 원유 수출 및 국제원조 감소로 상품·경상수지 적자 기조 지속

- 소량의 원유를 수출하고 식료품 등의 소비재와 자본재를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무역구조로 인해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모두 만성적인 적자를 시현하고 있음.
- 제2차 내전 발발로 원유 수출이 사실상 중단되어 수출과 수입이 동반 감소하고, 국제원조 감소에 따른 경상이전수지의 악화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015년 -8.0%, 2016년 -4.6%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7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원조 제공에 따라 동 비중이 -3.4%로 다소 개선한 것으로 추정됨.

□ 정정불안으로 인해 2015년 이후 외환보유액 급감

- 외환보유액은 2015년 제2차 내전 발발로 인한 원유·천연가스의 생산 및 수출 감소에 따라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2016년 말에는 내전의 지속에 따른 외국인투자자금 유출로 전년대비 73% 급감한 5.4억 달러로 위축된 데 이어 2017년 말 1.9억 달러까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됨.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8년 1월 17일 살만(Salman) 국왕의 명에 따라 예멘 중앙은행에 외환보유고 유지 용도로 20억 달러를 예치하였음. 이는 예멘 정부가 상환할 의무가 없는 무상원조 성격의 자금임.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o	2018 ^f
경 상 수 지	-1,488	-3,026	-1,254	-869	-363
경 상 수 지 / G D P	-3.4	-8.0	-4.6	-3.4	-1.4
상 품 수 지	-4,777	-4,984	-2,953	-3,695	-4,758
수 출	7,724	1,439	164	385	530
수 입	12,500	6,423	3,117	4,079	5,288
외 환 보 유 액	4,606	1,981	535	187	1,217
총 외 채 잔 액	7,818	7,287	7,066	6,593	6,302
총 외 채 잔 액 / G D P	18.1	19.3	25.9	25.7	24.6
D S R	4.1	23.5	100.6	90.7	44.7

자료: IMF, EIU, OECD.

□ 총외채잔액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나 D.S.R은 급등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IMF 등 국제기구로부터의 차관 도입 증가 및 마이너스 성장의 영향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대 중반으로 현재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추정됨.
- D.S.R은 제2차 내전의 발발로 원유·천연가스의 생산·수출이 차질을 빚으면서 2015년 23.5%에 이어 2016년 100% 이상으로 급등하고 2017년에도 9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남북 예멘의 통일 후에도 내분 지속으로 정치적 불안 축적

- 북예멘은 1918년 11월 1일 오스만 투르크 제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예멘 왕국이 되고, 1962년 군주제를 폐지하며 예멘아랍공화국(수도는 사나)을 선포하였음.

- 남예멘은 1839년 이래 영국 식민지였으나, 196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여 사회주의 정권이 통치하는 예멘인민민주공화국(수도는 아덴)이 되었음.
- 이후 양국은 제1차(1972년) 및 제2차(1979년) 남·북 예멘 전쟁을 벌이는 등 적대관계에 놓였으나, 국제사회의 중재와 양국 정부의 자발적 노력을 거쳐 1990년 5월 22일 남·북 예멘의 통일로 예멘 공화국이 수립됨.
- 그러나 통일 후에도 남예멘의 분리주의 세력이 통일에 반대하며 남예멘 재분리를 시도하여 1994년 예멘 정부군과 분리주의 군사조직 간에 제1차 내전이 발발하고(분리주의 측의 패배로 통일 유지), 시아파가 주도하는 후티 반군이 반란을 거듭하는 등 정치적 불안이 계속 축적되었음.

<그림 1> 1990년 5월 22일 통일 이전의 예멘 지도



- 과도정부의 연방제 추진으로 후티(Houthi) 반군의 쿠데타 발발, 2015년 3월 제2차 내전으로 이어져 현재까지 계속
- 2011년 ‘아랍의 봄’ 사태에 따른 민주화 시위의 여파로 2012년 2월 살레 대통령이 34년의 장기집권을 마감하고 퇴임한 뒤 하디(Hadi) 前부통령이 과도정부의 수반으로 취임하였음.

- 과도정부는 2014년 예멘을 총 6개의 자치구 연방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추진하였으나, 시아파가 주도하는 북부 지역 후티(Houthi) 반군이 이에 반발하여 정부군에 대한 공격을 주도하였음.
 - 예멘의 유전이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연방제 개편시 후티 반군의 거점인 북부 사다(Sa'dah) 지역은 경제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음.
 - 후티 반군은 이미 2004년 6~9월의 제1차 반란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정부군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음. 4차 반란까지는 정부군의 승리로 끝났으나, 5차 반란부터 교착 상태가 지속되었음.
- 2014년 9월 수도인 사나를 점령한 바 있는 후티 반군은 예멘 정부와의 정치적 분권 협상이 결렬되자 2015년 2월 쿠데타로 정부를 전복하고 임시 헌법을 공포하여 기존 의회를 해산하고 새 의회를 구성함. 하디 대통령은 남부의 아덴으로 피신한 후 3월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하였으며, 예멘 정부군과 후티 반군 간에 제2차 예멘 내전이 발발하였음.
- 2016년 8월 쿠웨이트에서 개최된 평화협상에서 후티 반군이 UN의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3개월 간 지속된 정부-반군 간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내전은 장기화 국면으로 돌입하여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

후티(Houthi) 반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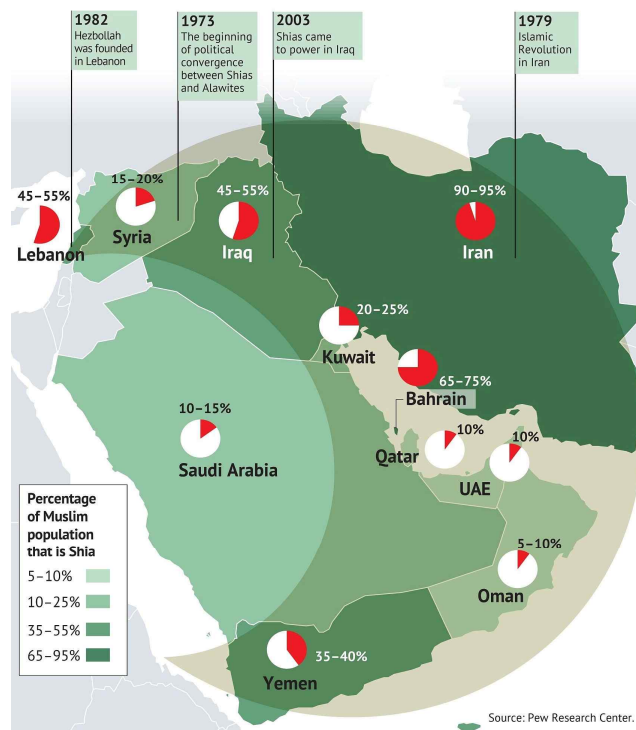
- 1994년 창설, 공식 명칭은 Ansar Allah(아랍어로 “신의 지지자”)
- 초대 지도자인 Hussein Badreddin al-Houthi(1956-2004)의 성(姓)을 따서 후티 반군으로 통칭
 - : 시아파의 분파인 자이드파가 주도하여 “시아파 후티 반군”으로 불리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니파도 포괄
- 1994년 제1차 예멘 내전(남예멘의 분리독립 시도) 당시 수니파가 남예멘 분리 운동을 지원하자, 수니파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여 무장활동 개시
- 2004년 6월 수니파 중심의 예멘 정부에 반기를 들어 1차 후티 반란 발생
 - : 9월 10일 지도자인 al-Houthi가 정부군에 의해 사살 ⇨ 정부군 승리
- 이후 제2차 예멘 내전 발발 전까지 6차례에 걸친 반란
 - : 2·3·4차 반란은 정부군 승리로 귀결, 5·6차 반란은 교착 상태 지속
 - ⇨ 7차 반란이 제2차 예멘 내전으로 비화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

□ 정부군과 반군 간 내전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대리전으로 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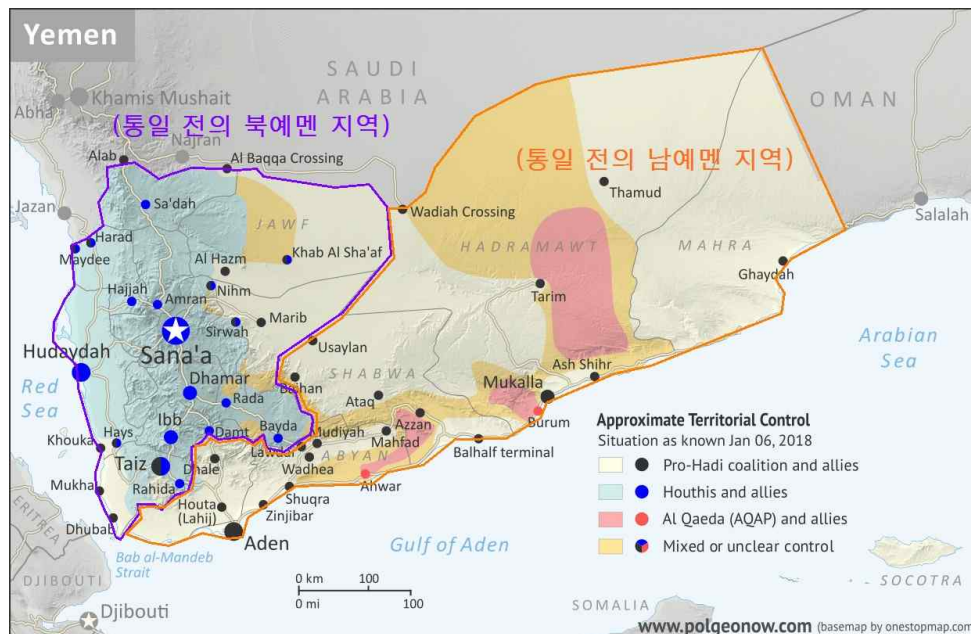
- 제2차 예멘 내전이 발발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 반군을 불법 쿠데타 세력으로 규정하고 수니파 국가들과 동맹군을 결성, 국제사회가 예멘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 하디 대통령의 현 정부(수니파 주도)를 지원하여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에 돌입하며 내전에 적극 개입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제1부총리 겸 국방장관으로 현재 사실상의 통치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대 이란 강경론자로, 후티 반군이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과 결탁하여 자국을 위협할 것을 경계하여 예멘 내전에의 전격 개입을 주도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동맹군에는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이집트, 모로코 등이 참여하고 있음. 미국, 영국, 호주, 터키, 캐나다 등은 참전하지 않지만 직·간접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동맹군은 지상군도 투입하고 있지만 주로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이 주도하는 공군 전투기의 공습 위주로 후티 반군을 공격하고 있음.
- 한편, 시아파 국가인 이란은 후티 반군을 지원함에 따라 예멘의 내전이 사우디아라비아-이란의 대리전 양상으로 비화되었음.
 -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UN의 예멘 인권상황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시아파가 주도하는 후티 반군에 이란이 비공개적으로 무기 제공 등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란의 개입은 레바논(헤즈볼라), 시리아(알 아사드 정권), 이라크, 이란, 예멘(후티 반군)을 연결하는 이른바 “시아파 초승달”을 형성하여 사우디아라비아를 압박하려는 의도임.
- 수니파의 맹주를 자처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시아파의 맹주로 군림하고 있는 이란은 걸프 지역의 패권을 다투는 숙적으로, 중동 지역의 정치적 갈등·충돌에서 각각 수니파 진영과 시아파 진영을 지원하여 양국 간의 대리전이 확산되고 있음.
 - 시리아 내전, 바레인과 레바논의 내부적 갈등, 카타르 단교 사태 등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대리전, 대리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음.

○ 아울러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AQAP), 이슬람국가(IS) 등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들이 남부 지역에서 파괴활동을 벌이며 개입, 내전의 양상이 더욱 복잡해지는 상황임.

<그림 2> 이란의 “시아파 초승달”(Shia Crescent) 구상도



<그림 3> 예멘 내전 상황: 세력별 점령 지역(2018.1월 업데이트)



자료: Political Geography Now (<http://www.polgeonow.com>)

□ **살레 前대통령이 퇴임 후 손잡았던 후티 반군에 의해 피살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출구전략에 차질이 빚어져 사태 장기화 우려**

- 살레 前대통령이 2017년 12월 4일 수도 사나에서 후티 반군에게 살해되어 내전 상황이 예측불허의 국면으로 악화되고 있음.
 - 34년 간의 독재 끝에 2012년 2월 민주화 시위 결과 권좌에서 축출된 살레 前대통령은 내전이 발발하자 대립관계였던 후티 반군과 협력하여 예멘 정부군에 대한 공격에 합류하였으나, 최근 후티 반군과 결별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내전 종식을 위한 물밑 협상을 벌이던 중 후티 반군에게 피살되었음.
- 예멘 내전 개입으로 예상을 훨씬 넘는 정치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자 살레 前대통령을 통한 협상에 의한 내전 종식이라는 출구전략을 추진하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살레의 피살로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이는 내전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사태의 장기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 내전의 장기화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비 지출 증가와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지는 한편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역내 불안정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 **아랍에미리트의 후원을 받는 남예멘 분리주의 세력 남부과도평의회(STC)의 대두로 상황은 더욱 악화**

- 남예멘의 재분리 독립을 추진코자 2017년 5월 결성된 정치조직인 남부과도평의회(STC)는 그동안 예멘 정부군과 협력하여 후티 반군에 맞서 싸웠으나, 최근 정부의 무능과 부정부패를 비판하며 사우디아라비아에 망명 중인 하디 대통령에게 2018년 1월 21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였음.
- 하디 대통령이 요구를 거부하자, STC는 1월 28일 아덴에 위치한 예멘 정부의 임시정부 청사를 무력으로 기습 점거하였음. 이 과정에서 예멘 정부군과 교전을 벌여 이틀 동안 최소 38명이 사망, 222명이 부상하였음 (국제적십자사의 보고).
 - 아흐메드 빈다게르 예멘 총리는 STC의 정부청사 점거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아랍 동맹군의 즉각적인 개입을 요청하였음.

-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 매장량을 보유한 옛 남예멘 지역에서는 옛 북예멘 세력 중심의 예멘 정부가 자원을 수탈하고 남예멘 주민들을 차별한다는 박탈감이 만연하여, 2007년 정치조직 “남부운동”을 결성하여 평등한 권력 분점 및 남부의 자치권을 요구해 오고 있음.
- 현재 STC는 남부만의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하고, 남예멘의 분리독립을 위한 국민투표의 실시를 주장하며 예멘 정부(제1정부)와 후티 반군 임시정부(제2정부)에 이은 제3의 정부로 등장하였음.
- 이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아랍 동맹군의 일원으로 예멘 내전에 개입 중인 아랍에미리트가 실제로는 STC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고, STC가 예멘 정부군을 공격함에 따라 내전의 역학관계가 더욱 복잡해져 혼돈이 가중됨.
- 2월 1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안보 관련 고위급 인사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아덴을 방문, STC와 정부군의 충돌사태를 논의한 뒤 성명을 통해 STC와 정부군이 후티 반군의 격퇴를 위한 협력을 계속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발표, 표면상으로는 갈등이 봉합되었으나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 종파·부족 간 갈등의 상호 작용이 갈등과 대립을 악화시켜 예멘 재분리 가능성 더욱 고조

- 예멘 사태는 중동 지역의 뿌리 깊은 종파·부족 간 갈등의 총합과도 같으며, 여기에 남·북 예멘 간의 지역갈등까지 더해져 예멘의 재분리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 또한 역대 숙적이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대 이란 강경책 고수로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패권 다툼이 예멘 내전의 배후로 작용하고 있어, 남·북 예멘의 재분리 후에도 역대 갈등의 지속이 불가피함.
 - 예멘이 수니파가 우세한 남예멘과 시아파가 우세한 북예멘으로 분리되면 각각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후원 하에 양국 간 갈등의 대리인으로써 상호 대립과 갈등을 지속하여 역대 안정을 계속 저해할 것으로 우려됨.

□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모두 예멘 내전에서 발을 빼기 어려운 상황

-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내전의 장기화,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의 악화와 국제사회의 비판, 국방비 지출 급증에 직면하자 살레 前대통령을 통해 휴전을 추진하는 출구전략을 모색하였으나, 이를 배신으로 간주한 후티 반군이 살레 前대통령을 살해하자 원점으로 복귀한 상황임.
- 이란도 역내 분쟁 개입에 대한 미국 주도의 비난과 압력은 물론 이란 사회 내부의 반발(최근 반정부 시위에서 외부 분쟁에 개입하여 국력을 낭비하고 제재를 자초한다는 비판 제기)에 직면하였음에도 혁명수비대, 보수파 성직자 등 기득권 세력에 밀려 개입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음.
- 여기에 아랍에미리트의 남예멘 분리주의 세력 지원으로 상황이 더한층 복잡해져, 설령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중 어느 한 쪽이 물러난다 해도 남예멘 분리주의 세력의 대두와 그로 인한 남북 예멘 재분리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내전으로 인한 사상자 급증, 식량 부족과 전염병 창궐 등으로 인도주의적 위기 심화

- 2015년 3월 제2차 내전 발발 후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아랍 동맹군이 개입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의 공습에 의한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 발생, 식량 부족과 전염병 창궐 등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의 심화가 계속되고 있음.
 - 예멘은 내전 발발 전부터 중동 지역의 최빈국으로 전반적 생활수준이 매우 열악함. 내전 발발 이전인 2014년 기준으로 국민의 54%가 빈곤선 이하로 집계되었으며, 유아사망률은 1,000명 당 47.4명에 달하였음.
- 2018년 1월 UN아동기금(UNICEF) 보고서에 의하면, 내전으로 인해 예멘 어린이 5천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으며 4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영양 실조로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음.

- 동 보고서는 예멘의 보건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고 아랍 동맹군에 의한 항만, 공항 봉쇄로 식량과 의약품 등의 구호품 전달이 차질을 빚으면서 기아 발생과 콜레라, 디프테리아 등의 전염병 창궐로 인해 어린이들을 위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음.
- 역시 2018년 1월에 발표된 UN의 예멘 인권상황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아랍 동맹군이 의도적으로 예멘의 민간인 지역을 폭격하여 광범위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 총 157명의 사망자를 유발한 2017년 중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의 공습 10건을 조사한 결과 난민선, 야시장, 민간인 거주 건물, 호텔, 차량은 물론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하는 정부군까지 공습의 표적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아랍 동맹군에 의한 항만, 공항 봉쇄로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 직면

- 2017년 11월 4일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 부근까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 미사일이 시아파인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으로부터 공급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이에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아랍 동맹군은 이란으로부터의 무기밀수 차단을 명분으로 예멘의 모든 공항, 항만에 대한 전면 봉쇄를 단행하였음.
- 이 봉쇄로 인해 UN으로부터의 구호식량 및 의약품 공급이 차단되면서 예멘 국민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대규모의 인도적 참사 위기에 직면하자, 아랍 동맹군은 국제적인 비난 여론 및 미국 정부의 개입에 따라 11월 23일 정오에 예멘의 홍해 연안 호데이다(Hodeidah) 항만과 수도 사나 공항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인도적 지원물자의 반입을 허용하였음.
- 그러나 예멘의 다른 공항 및 항만에 대한 아랍 동맹군의 봉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후티 반군은 1월 8일 아랍 동맹군이 예멘의 공항 및 항만에 대한 봉쇄를 전면 해제하지 않으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외국 선박들의 홍해 운항을 전면 봉쇄하겠다고 경고하였음.
- 후티 반군의 경고는 현재 시점(동 평가 시점)까지는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으나, 상황 악화시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AQAP), 이슬람국가(IS) 등 극단주의 조직의 세력 확장으로 치안불안 심화

- 2010년 1월 알카에다 사우디아라비아 지부와 예멘 지부 통합으로 출범한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AQAP)는 2010년 1월 ‘아덴 아비안 군’ 창설 후 다수의 테러를 자행하며 예멘의 치안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한편, 이슬람국가(IS)도 예멘이 내전으로 인해 무정부 상태에 빠진 것을 기회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예멘 각지에서 폭탄 테러 등을 자행하며 예멘에서의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음.
 - 특히 IS는 최근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근거지를 상실한 이후 리비아와 예멘을 새 근거지로 삼고자 시도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오만을 비롯한 인접국들에게도 장기적, 고질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³⁾
- AQAP, IS 외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들도 최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테러와 파괴활동을 자행하여, 현재 예멘은 리비아, 시리아와 마찬가지로 극단주의 무장조직들의 온상이 되고 있는 상황임.

3. 국제관계

□ 테러조직 등의 소탕을 위해 미국과 군사적 협력

- 예멘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 테러전쟁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미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1~16년 예멘에 대한 미국의 경제·군사·인도적 지원 규모는 10억 달러에 달함.
- 미국은 제2차 내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아랍 동맹군에 무기, 정보 등을 제공하며 예멘 정부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GCC 국가들과의 유대관계 강화 노력

- 예멘은 1991년 걸프 전쟁에서 이라크를 지지함에 따라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GCC(걸프협력위원회) 회원국들과의 관계 악화로 예멘 노동자들의 사우디아라비아 취업이 제한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음.

3) Global Terrorism Index 2017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예멘에서 발생한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의 23%가 IS, 13%가 AQAP의 테러에 의해 발생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GCC(걸프협력위원회) 회원국들에 취업하고 있는 예멘인 근로자들의 송금은 예멘의 주요 외화수입원 중 하나임.
- 그러나 2000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국경협정 체결 등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였으며, 2010년에는 GCC 국가들의 주도로 예멘을 지원하기 위한 “예멘의 친구들”(Friends of Yemen) 모임이 결성된 바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8년 1월 17일 예멘 중앙은행에 외환보유고의 유지를 위한 무상원조 20억 달러를 제공한 바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파리클럽으로부터 3차례의 외채 탕감 및 채무재조정 수혜

- 예멘 정부는 1990년 통일 직후 외채규모가 급증한 결과 파리클럽에 의해 1996~2001년 중 3차례 채무재조정을 받아 외채부담을 경감시킨 바 있음.

※ 1996년 9월 75.0백만 달러 탕감 및 37.0백만 달러 채무재조정
 1997년 11월 967.5백만 달러 탕감 및 476.5백만 달러 채무재조정
 2001년 6월 26.0백만 달러 탕감 및 395.0백만 달러 채무재조정

- 2017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들의 ECA(공적수출신용기관)들로부터의 대출금에 대한 연체규모는 중장기여신 2억 달러이며, 2.9억 달러의 여신에 대해 채무재조정이 실시되었음.

- 2017년 9월 말 기준 IMF 및 세계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또는 차관에 대한 연체는 없음.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

- OECD는 예멘의 정치·사회 불안 지속으로 인해 예멘의 국별신용도등급을 2010년 4월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하향 조정 후 현재까지 7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국제신용평가 3사는 예멘에 대해 국별신용도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OECD	7등급 (2018. 1)	7등급 (2017. 1)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 1985년 8월 22일 (북한과는 1963. 3. 9. 수교)
- 주요 협정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차관협정('03)
- 해외직접투자 현황(2017.9월말 누계기준) : 8건, 13억 2,345만 달러
- 교역규모 : 2017년 기준 수출액 89백만 달러, 수입액 43백만 달러

<표 4> 한·예멘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5	2016	2017	주요 품목
수 출	203	127	89	석유제품, 자동차, 인조장섬유직물
수 입	361	17	43	천연가스, 석유제품, 동(銅)제품
교역규모	564	144	132	-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예멘은 원유와 천연가스를 생산·수출하는 에너지 자원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종파·부족 간 갈등, 반정부 시위, 2015년 발발 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제2차 내전 등에 따른 정치·사회 혼란 지속 및 원유·천연가스 생산 중단으로 인해 2014~17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천연가스 생산,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방면에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농업 위주의 경제구조, 열악한 인프라,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 부패, 종파·부족·지역(북부와 남부) 간 갈등 및 내전 지속 등이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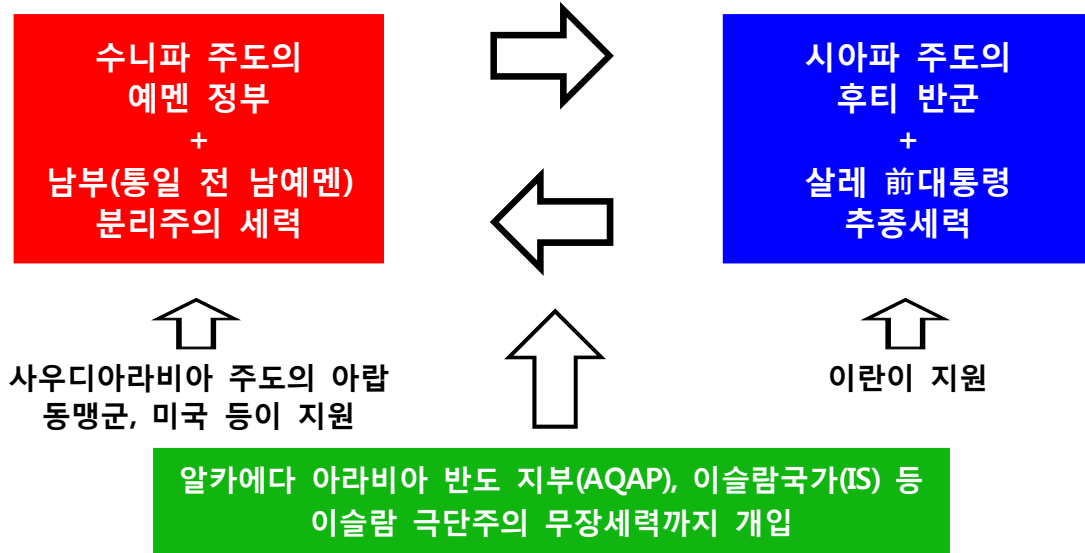
- 2012년 2월 살레 대통령의 장기집권이 끝나고 과도정부가 출범하였으나, 후티 반군의 정부군 공격 강화로 2015년 3월 제2차 내전이 발발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개입으로 내전이 격화됨. 아울러 혼란을 틈타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AQAP), 이슬람국가(IS) 등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들의 테러활동으로 정치·사회 불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 내전으로 인한 정정불안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입 위축으로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감소하여 대외지급능력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외채상환 능력도 악화된 상태임.

선임조사역 오경일 (☎02-3779-6664)
E-mail: oki1122@koreaexim.go.kr

<참고자료 1>

제2차 예멘 내전의 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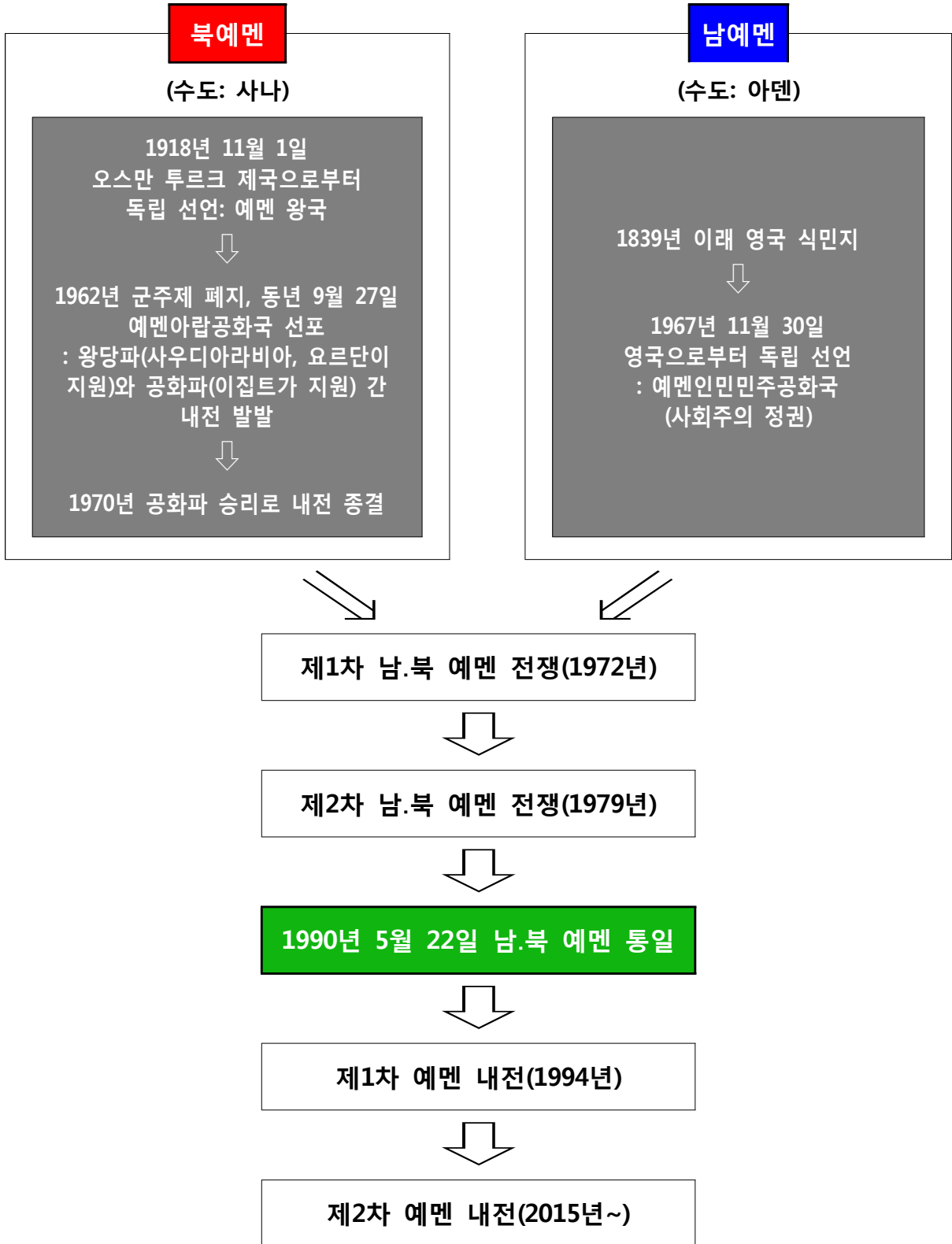
중동 지역 내 사우디아라비아(수니파)와 이란(시아파) 간의 대리전 또는 대리갈등

해당국	개시 시점	형태	수니파 진영	시아파 진영
예멘	2015년	내전	예멘 정부(사우디 후원) 남부 분리주의 세력(UAE 후원)	후티 반군 세력(이란 후원)
시리아	2011년	내전	수니파 반군세력(사우디 후원) * 극단주의 무장조직 포함	시리아 정부 및 기득권층 ¹⁾ (이란 후원)
바레인	2011년	내부 갈등	왕실 및 기득권층	국민의 약 65%
카타르	2017년	단교 사태	사우디 주도의 수니파 진영 ²⁾	이란, 터키 ³⁾
레바논	2017년	내부 갈등(총리 사퇴 선언, 번복)	레바논 내 수니파(사우디 후원)	헤즈볼라(이란 후원)

- 1) 시아파의 분파인 알라위파
- 2)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바레인 등 (쿠웨이트와 오만은 중립 유지)
- 3) 터키는 수니파임에도 카타르를 지원

<참고자료 2>

북예멘과 남예멘



<참고자료 3>

예멘 분쟁의 역사

□ 통일 전의 북예멘이 제1당사자로 직접 연루된 분쟁

명 칭	시 기	내 용	결 과
사우디아라비아-북예멘 전쟁	1943년	사우디아라비아와 북예멘 간의 전쟁	북예멘 패배
북예멘 내전	1962~70년	왕당파와 공화파 간의 내전	공화파 승리
국민민주전선(NDF) 주도의 반란	1978~82년	내란	정부군 승리

□ 통일 전의 남예멘이 제1당사자로 직접 연루된 분쟁

명 칭	시 기	내 용	결 과
아덴 비상사태	1963~67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추진	남예멘 독립
알-와디아 전쟁	1969년	사우디아라비아와 남예멘 간의 영토분쟁	남예멘 패배
남예멘 내전	1986년	내란	정권 교체: Haidar Abu Bakr al-Attas 총리 집권

□ 통일 전의 북예멘과 남예멘 간의 분쟁

명 칭	시 기	내 용	결 과
1차 남북 예멘 전쟁	1972년	10월 초 발발, 동월 28일 카이로 협정으로 종전	남북 예멘의 통일을 위한 논의 시작
2차 남북 예멘 전쟁	1979년	2월 24일 발발, 3월 19일 쿠웨이트 협정으로 종전	남북 예멘의 통일을 위한 논의 가속화

□ 통일 후의 예멘의 분쟁 (1·2차 내전 및 후티 반군의 반란 제외)

명 칭	시 기	내 용	결 과
하니쉬 섬 위기	1995년	홍해상 하니쉬 섬 영유권을 놓고 에리트레아와 충돌	패배하여 영유권 상실
알카에다 반란	1998년 ~현재진행	알카에다, 이슬람국가(IS)가 차례로 예멘 진입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각지에서 파괴활동
남예멘 반란	2009~15년	남예멘의 분리독립 재시도	분리주의 진영 아덴 장악

□ 시아파 후티 반군의 반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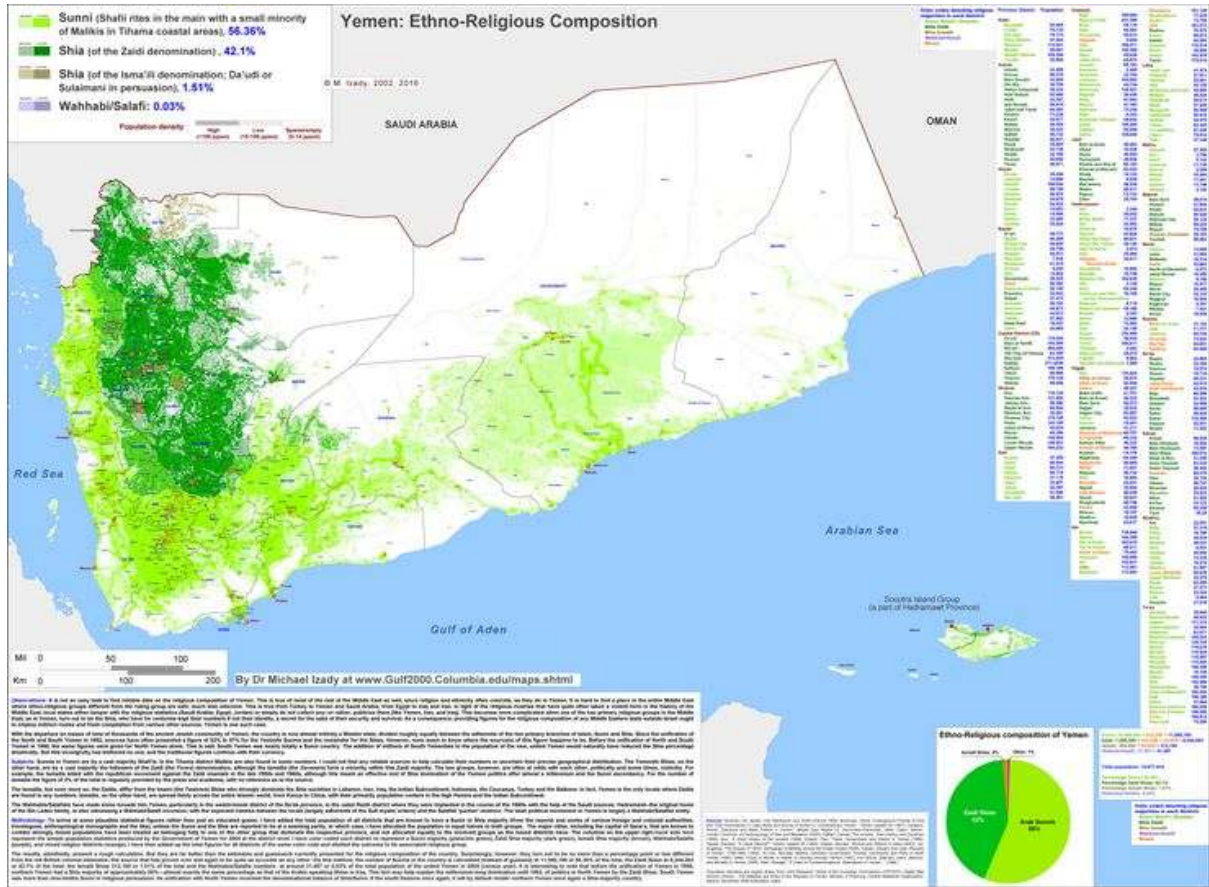
명 칭	시 기	결 과
1차 반란	2004년 6~9월	정부군 승리
2차 반란	2005년 3~6월	정부군 승리
3차 반란	2005년 11월 ~ 2006년 초	정부군 승리
4차 반란	2007년 1~6월	정부군 승리
5차 반란	2008년 3~7월	교착 상태 지속
6차 반란	2009년 8월 ~ 2010년 2월	교착 상태 지속
7차 반란	2012~15년	제2차 예멘 내전으로 비화

□ 제1·2차 예멘 내전

명 칭	시 기	내 용	결 과
제1차 예멘 내전	1994년	남예멘의 분리독립 시도	분리주의 진영 패배 : 통일 유지
제2차 예멘 내전	2015년 ~현재진행	후티 반군의 7차 반란이 정부군과 후티 반군 간의 내전으로 비화 : 후티 반군은 수도 사나를 중심으로 하는 북예멘 점령, 정부는 남예멘의 아덴에 임시수도	정부군은 사우디아라비아, 후티 반군은 이란, 남예멘 분리주의 진영은 UAE의 후원을 받는 대리전으로 비화: 분리주의 진영이 아덴 점령, 사우디군의 공습으로 민간인 사상자 속출 ⇨ 상황 악화 일로

<참고자료 4>

예멘의 종교 분포도



※ 진한 녹색과 올리브색은 시아파(인구의 약 43.6%), 연두색은 수니파(전 인구의 약 56.4%)

자료: Columbia Gulf Project 2000 (gulf2000.columbia.edu/maps.shtml)